

최 명 섭
임업연구원

오갈피나무

과명 : 두릅나무과
 학명 : *Acanthopanax sessiliflorus*
 영명 : Five Leaf Aralia
 한명 : 五加皮木
 일명 : 만시우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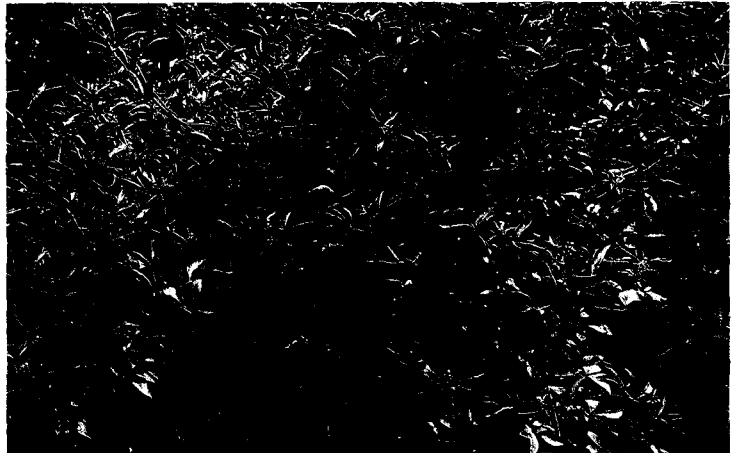
도시의 정원에 심을만한 나무는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꽃과 열매, 그리고 수형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다.

오갈피나무는 이런 요건을 골고루 갖춘데다 약용수로도 명성이 높아 도시 정원의 관상수로서는 제격이다. 이 나무의 잎이 사람 손가락처럼 5개로 갈라져 '오갈피'라는 수목명이 붙여 졌다.

오갈피나무는 예전부터 정원수라기 보다는 약용수로 더 알려진 나무로 오래 전부터 인가 주변에 식재되어온 나무이다.

오갈피나무는 원래 우리나라 원산으로 바닷가에서 높은 산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큰 나무 그늘에서 잘 자라는 나무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오갈피나무류는 오갈피나무(*A. sessiliflorus*), 섬오갈피나무(*A. korea-*



▲오갈피나무 전경



▶섬오갈피나무

num), 지리산오갈피(*A. chiisanensis*), 서울오갈피(*A. seoulense*), 털오갈피(*A. rufinerve*), 가

시오갈피(*A. senticosus*), 민가시오갈피(*A. senticosus* for. *inermis*), 왕가시오갈피(*A. sentico-*



▲가시오갈피나무 열매

sus var. koreanus) 등이 있다.

1. 생태적 특성

오갈피나무는 전국의 산에 자생하는 낙엽활엽 작은 키 나무로 높이가 3~4m 정도 자라고 밑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 우산 모양의 수형(樹形)을 이룬다.

계곡부의 수분이 있고, 바위가 많은 입지를 좋아하며, 음지에서 생육이 불량하다. 섬오갈피는 제주도의 바닷가에서 표고 500m 까지 자라며, 서울오갈피나무는 서울 청량리 홍릉 주변에서 자라는 수목으로 서울 특산 수종이며, 지리산오갈피는 지리산, 소요산, 강원도 등 중부지역에서 자라며, 가시오갈피나무는 지리산, 치악산, 계방산, 태기산 등의 심산지역에서 자란다.

내한성과 대기오염에 강하고, 맹아력(萌芽力)이 좋으며 병충해가 거의 없어 재배하거나 가정예식재시에도 관리가 편리한 수종이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어긋나고, 손바닥처럼 생긴 복엽을 가지며, 소엽은 3~5개

로 타원형이거나 도란형으로 잎의 끝은 점차 뾰족해지며, 길이 6~15cm이다. 가장자리에는 잔 톱 거치가 있으며, 표면은 진한 녹색이고, 뒷면은 연한 녹색이며 잎자루는 길이 3~6cm이다. 우산형으로 피는 꽃은 새가지 끝에 달리며 소화경은 짧고, 꽃잎은 퇴화하여



▲오갈피나무 열매

잘 볼수가 없으나 수술만은 돋보여 기이한 느낌을 준다. 꽃은 8~9월에 자주색으로 피며, 열매는 타원형이고, 약간 편평하고, 길이 1.0~1.4cm로서 10월에 검은색으로 익는다.

3 조경수로써의 활용

마치 삭발한 아기사슴의 머리 같은 형상의 우산 모양의 꽃(花序)이 신비롭게 여겨지고, 사람의 손바닥처럼 생긴 잎파리는 더욱 정겹고, 우산 모양의 나무 수형은 안정감을 주어 가정 정원이나 공원 등에 식재하기에 매우 적절하고, 밑에서부터 많은 줄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생울타리용으로도

쓰이며, 큰 나무 아래서도 잘 자라 식재할 수 있는 면적은 넓어진다.

야성적인 향기가 무더운 여름철에 청량제처럼 풍기며, 꽃속에는 많은 꿀샘을 갖고 있어 벌떼들이 잉잉거리고 모여 든다.

꽃이 지고난 뒤, 가을에 익은 어린 애 주먹만큼한 열매 몽치는 녹색에서 검은 자색으로 익어 간다. 익은 열매는 즉시 떨어지지않고 초겨울을 지나 다음 해 1~2월께 찬바람을 맞으며 하나 둘 떨어진다. 엄동 설한(嚴冬寒雪)에도 열매가 그대로 매달려 있어 감홍을 더해 준다.

4. 번식법

'종자' 및 '꼭짓이'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종자번식은 늦은 가을에 채취한 종자의 겉 껍질을 벗기고 정선하여 2년간 노천매장(露天埋藏)하였다가 봄에 파종하거나 그 해 여름에 자란 가지를 녹지삽목(綠地插木)하면, 뿌리가 잘 내리나 가시오갈피는 종자결실이 불량하여 발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5. 그 밖의 용도

뿌리와 줄기의 껍질은 약용으로 쓰이고, 민간에서는 껍질을 볶아서 차로 이용하며, 음료수로도 쓰인다.

꽃에는 꿀이 많아 양봉식물로 좋으며, 겨울철에도 떨어지지않는 열매는 새벽으로 이용된다.